

[오피니언]

光日春秋

임동욱



호두까기 인형(The Nutcracker)은 미국 뉴욕 시립 밤례단을 비롯한 세계적 밤례단이 연말이면 단글로 공연하는 작품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끼고 특히 아이들을 향상과 희망의 나래에 이끄는 소위 명품이다. 차이코프스키의 명곡으로 인간 정신을 상징하는 작품의 하나인 낚크래커가 태평양을 건너서는 우리의 약점과 치부를 단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우리의 경우에 낚크래커는 미국의 컨설팅 기관인 부즈 얼런과 해밀턴의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연유한다. 1997년 우리에게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한참의 당시 부즈 얼런과 해밀턴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저비용의 중국과 고효율의 일본의 협공을 받아 마치 낚크래커 속에 끼인 호두처럼 되었다”고 지적하며, 변하지 않으면 낚크래커 속의 호두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진단했다.

변하지 않으면 깨지기에 많은 진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구조개혁이었고, 사회 전반에 걸친 새틀짜이자 지난 10년 동안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직도 세계 문명표준에 걸맞지 못한 탓이겠지만 금년 들어서 대기업 총수가 회두로 삼은 샌드위치 코리아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샌드위치 코리아는 낚크래커 보다 범위가 넓고 소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이나 사실 나쁘게 전화한 것이다.

1997년 당시 낚크래커는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수출환경을 지적하는 말이었는데 점차 선진국에는 기술과 품질이 떨어지고 후발개발도상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없는 나라 경제의 단점을 대변하는 말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샌드위

치 코리아는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문화, 사회 등 나라의 각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약점이나 한계를 부각하는 말이 되고 있다.

심지어 스포츠의 세계도 샌드위치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세계 골프계를 호령하는 타이거 우즈의 선택적 출전 때문에 골마리를 않고 있는 미국 PGA의 현실도 PGA 규칙부어를 후원하는 기업들과 골프 팬, 그리고 타이거 우즈 사이에 끼여 있는 샌드위치론으로 설명하면 설득력이 강해진다.

낚크래커와 샌드위치

낚크래커나 샌드위치 코리아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법은 반도체, 가전제품, 휴대폰 등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로 무장하여 각 분야에서 글로벌 품질로 자리 잡은 기업들과 자동차, 제철, 조선,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품질로 후보군으로 약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전과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기업은 가격은 일본보다 낮고 기술은 중국보다 앞서고 있기에 이를 역(逆) 낚크래커 현상을 부르기도 한다.

최근의 학 이수들이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과 한미 FTA 협상 타결 역시 역 낚크래커나 역 샌드위치가 되어야 한다. 우선 정치인 손학규의 경우

탈당을 둘러싼 관념 대립 때문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현재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향후 정치역정에 관계없이 현재의 샌드위치 상황을 극복하여 역 샌드위치가 되는 지혜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그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역시 낚크래커를 극복한 기업들에게서 향후 방향과 정책과 제를 찾을 수 있다. 협상을 통해 양보한 것과 얻은 것을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를 역으로 샌드위치 시켜버리는 지혜와 비전,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타의에 의한 개국과 1960년대의 수출입국에 의한 개국에 이어 한미 FTA 협상 타결이 명실상부한 제3의 개국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헤어날 수 없는 온갖 나쁜 것을 다 갖고 있는 판도라 상자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이 희망이다. 이러한 희망을 부동경쟁으로 보통 사람들은 고단한 현실을 헤쳐 나가고 있다. 낚크래커와 샌드위치가 나라의 현실이든 개인의 정치적 역정이든 간에 이들을 역(逆) 낚크래커와 역 샌드위치로 만드는 비전과 전략, 그리고 희망을 보고 싶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역 샌드위치가 되는 길이니까 말이다. 〈충주대 행정학부 교수·한국대통령학 연구소 부소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회 한미 FTA 협상 철저히 검증하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와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는 4일 통일외교통상위와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한국측 대표단과 관련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검증 절차 및 미타결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는 검증을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과제를 떠안은 것이다.

국회는 이번 검증을 통해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은 없는지, 피해산업의 지원대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정략을 떠나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민에 부합되는지를 대차대조표를 통해 명밀히 분석한 뒤 비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협상 타결을 선언하면서 개괄적인 내용만 공개해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알리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쇠고기도 미국으로 둔갑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는 정략과 정파를 떠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빙말이었나

정부가 광주와 부산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미루면서 지방건설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적용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한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광주와 부산의 투기과열지구 문제에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사안이다. 정부는 4월 이전까지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정부가 아직까지 실사작업조차 벌이지 않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지방건설경기는 매우 심각하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광주와 부산 등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5천616가구의 94%인 7만1천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방건설경기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지역을 이유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미뤄왔지만 이제 그 필계마저 사라졌다. 광주와 부산에서 부동산 투기과열행위 등을 찾아볼 수 없다.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지역을 과열지구로 둑어 두는 것은 ‘지방 죽이기’일 뿐이다.

정부는 지방건설경기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 달라’는 요구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방부동산 대책을 미루면 주택업체가 무더기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너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광주와 부산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 부동산경기의 부양책이다. 정부는 당초 3월 중 발표기로 한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 종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으로 떠들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상태라는 의미의 난장판은 난장(亂場)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다. 난장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그 중 하나가 정해진 장날 외에 특별히 열리는 장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허가받은 상권인 육주비전(육의전) 외의 무허가 가게를 총청하기도 했다.

난장은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열리는 5일 장과는 달리 짧게는 10일, 길게는 2개 월넘게도 열렸다. 흔히 난장은 ‘튿다’거나 ‘섰다’고 표현된다. 난장을 들판은 물고 르듯이 경제 흐름을 소통해 한다는 의미이다.

난장에는 그 지방과 인근의 음갖 특산물이 모이므로 엄청난 돈과 물자가 유통되며 마련이다. 투전판 등 도박도 일부 허용돼 서민들의 시름을 달랠 때는 해방구 역할도 했다.

때로는 마을의 흥액을 막기 위해 난장을 트기도 했다. 마을에 흥년이나 물난리, 톨립병 등이 자주 발생해 폐촌 위해 지역 축제를 빙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마화 축제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축제를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처음 열린 국악난장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광양을 상징하는 큰 잔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동화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11월 개항한다. 무안공항은 반경 1천km이내에 북경, 상해, 홍콩, 동경 등 인구 5백만 이상의 주요도시가 19개나 위치해 있고, 이 도시들은 무안공항에서 비행기로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를 겨냥한 지역 거점공항으로 개발되는 무안공항은 인천 및 김해공항과 함께 삼각축을 형성, 국제 항공 수요를 분담하고 또 창출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우려의 시각도 없진 않지만 무안공항은 수요창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안공항의 수요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2008년 기준 여객의 경우 국내선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기다리며

165만2천 명, 국제선 17만3천 명 그리고 화물은 2천818만5천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F1그랑프리대회 개최, 나주 혁신도시 건설, J프로젝트, 무안기압도시 건설 등의 사업이 가시화되며 항공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공항 개항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8월 말까지 공항부대시설을 마무리하고 3개월 동안 시험운행 후 11월 개항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또 공항 활주로는 현재 2천800m로 대형747기가 이착륙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활주로를 3천200m로 확대하기 위해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은 말할 것도 없이 온 국민의 자산이다. 그러나 동시에 무안공항은 전남에 있으며 또 지역민들이 주 이용자 된다는 점에서, 공항 활성화의 책임은 결국 지역민의 뜻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

기고

안병량



농지는 우리 민족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형성해 온 농경문화의 뿌리다. 또 농사와 관련, 매월 특정일을 24절기 명절로 정해 세시풍속을 즐겨왔으며 정월 대보를 같은 날에는 향식과 함께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꾸며 고장 난 농기구를 수리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지는 인간의 먹거리인 식량 생산 외에 환경보전, 국토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농지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 다른 아인 농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축사 부지난 해소의 돌파구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새삼 그 의미가 크다.

절차가 필요했다. 자연히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농업진흥 지역 밖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토지비용 등 투자비가 많이 들어 축산농가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올 반기부터는 농지에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축사 부지난 해소의 돌파구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새삼 그 의미가 크다.

자연 순환농사 촉진할 농지법 개정

는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축산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위상과 가치를 확인하는 그야말로 축산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이었다.

축산업은 국내 농업생산액의 33.5%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다. 농업 10대 품목 중 6개를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유통증대, 환경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내 축산업의 살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하는 농지 전용신고와 분할축량 등 복잡한

복잡한 축사와 밭을 활용하는 사료작물과 녹을 살찌우는 훌륭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료작물은 또 가축에 좋은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주수가 끝난 녹은 사료작물로 장식화 목장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다.

농지법 개정은 말 그대로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전망이다.

이제 먼 나라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축산목장에도 많은 사람의 발길이 달리는 관광명소와 체험학습장으로 전국 곳곳에 만들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보다 광활한 농지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축산경제팀장〉

농촌 아이들에게 영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농촌 근무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돼 유능한 교사들이 농촌을 자주 떠나고 하는 요즘, 전남도 지역의 농촌은 학원도 많지 않아 영어교육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진다. 거기다가 영어를 쓰는 원어민 선생은 더욱 구하기 어렵다. 방학동안의 영어캠프도 도시아이들만을 위해 집중돼 있어서 농촌 아이들에게는 그립의 떡일 뿐이다.

요즘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와 박사들은 우수한 사람들은 직장을 뜯구해 많이 놀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를 전공한 석사 박사는 뽑아서 농촌에 특별 배치해 주는 것은 어필까.

▲조안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반 교사들이야 진급이나 생활불편을 광개로 자꾸만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 있는 유능한 석사와 박사들은 실력도 우수하고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으니 농촌에서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교사들이 농촌을 기피한다면